

제 214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 다이쇼 군국주의의 내적 논리 : 트라이치케 사상의 수용과 전유

강사 : 최 정훈(崔正訓, 공군사관학교 군사학과 강사)

시간 : 2017. 10. 31. 화. 12:00 - 14:00

장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 동) 102 호

2017 년 10 월 31 일(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 동) 102 호에서 제 214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약 20 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소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이쇼 군국주의의 내적 논리 : 트라이치케 사상의 수용과 전유'라는 주제로 최정훈 공군사관학교 군사학과 강사가 강연을 진행하였다. 최정훈 강사는 2014 년 서울대학교 서양사학사 · 외교학사를 취득한 후, 2016 년 동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2016 년부터 현재까지는 공군사관학교에서 군사학과 강사를 맡고 있다.

최정훈 강사는 본 발표를 총 여섯 장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이 다이쇼 시대 일본의 지식인이 관심을 지닌 군국주의 담론의 내적 논리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평화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군국주의 담론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적었다. '15 년 전쟁'기 군국주의의 사상과 실천에 대해서는 그것이 초래한 비극의 규모와 깊이로 인하여 일찍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칸트 사상이 활발히 논의된 다이쇼 시대의 군국주의 담론에 대한 사상사적 관심은 드물었다. 적어도 이 논의에 참여한 몇몇 이들에게 군국주의는 단순한 침략주의도, 평화주의라는 규범으로부터의 단순한 이탈도 아니었다. 일본 사상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논자들은 트라이치케 정치사상에 영향을 받아 군국주의론을 전개하였고, 여기에 용인 및 지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두 번째 장에서 최정훈 강사는 메이지 · 다이쇼 시대 및 1945 년 이후 칸트의 영구평화 사상이 일본에서 국가권력과 전쟁을 사유하기 위한 주요한 틀로 기능하였음을 개관하였다. 우선 메이지 담론 공간에서 영구평화 사상은 블룬칠리(J.K. Bluntschili)의 변용을 거친 형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칸트의 사유가 메이지의 사상 세계에서 본격적이거나 체계적인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지는 않았다. 칸트의 글이 일본 지식인에게 본격적인 사유의 원천이 된 것은 다이쇼 시대에 들어선 이후였다. 그 배경에는 1 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야기한 지성사적 흐름을 극복하고자 하는 흐름이 놓여 있었다. 도모나가 산주로(朝永三十郎)의 『칸트의 평화론』(カントの平和論)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일본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저작이다. 도모나가가 칸트를 소개한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가미카와

히코마쓰(神川彦松)는 도모나가의 『칸트의 평화론』을 탐독하고, 이에 자극을 받아 다이쇼 시대의 맥락과 칸트의 사유를 적극 결부시켰다. 도모나가와 가미카와 사상의 의의는 1 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계기로 이상주의 국제정치사상을 일본의 담론 세계에 소개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마키아벨리적 현실주의 · 권력정치론과는 독립된 패러다임이었다. 칸트가 제시한 사고 방식은 '15 년 전쟁' 중에는 다이쇼 시대만큼 활발히 논의되기 어려운 조건 하에 놓였지만, 종전 이후 일본 지식인에게도 연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게르하르트 리터(Gerhard Ritter)의 이론적 고찰을 참조하여, 국가권력(과 그 행사)을 윤리의 반대항에 두는 신칸트주의적 사고를 비판하는 입장의 존재를 환기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논변으로 군국주의를 부분적으로 용인 가능한 입장으로 재정의한 다이쇼 시대 담론을 소개하였다. 게르하르트 리터(Gerhard Ritter)는 『국가통치술과 전쟁술』(Staatskunst und Kriegshandwerk: Das Problem des Militarismus in Deutschland)에서 마이네케의 『국가이성의 이념』을 비판하였다. 리터는 이 글에서 평화가 윤리성과, 전쟁이 비윤리성과 맺는다고 생각되는 필연적 고리를 끊어 버린다. 한편, 다이쇼 군국주의 담론은 첫째로 군국주의가 논자에 따라 내포와 외연이 가변적인 개념이었다. 둘째, 군국주의를 재규정할 수 있는 유연성으로 인해 이 개념을 윤리적 비난에서 구해내거나 윤리성을 부과하려는 시도가 발견된다. 구체적인 예시로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다카쓰카 교(高塚疆),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군국주의를 부분적으로 용인 가능하게 재정의하려는 시도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오노즈카 기헤이지,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 등은 오늘날 상식화된 군국주의 이해와 같이 군국주의를 비판했다. 최정훈 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쇼 담론 공간의 일부 선도자가 군국주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옹호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국주의를 일정 조건 하에서 옹호 가능한 개념으로 만든 이들에게 트라이치케는 영감의 원천이었다. 칸트 사상에 주목하게 만든 정치적 맥락은 동시에 대척점에 있는 트라이치케 사상도 눈여겨 보게 만든 조건이었다.

네 번째 장에서는 프리드리히 폰 베른하르디(Friedrich von Bernhardi)와 영국인의 매개를 거쳐 트라이치케 사유를 왜곡하여 파악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영국에서 트라이치케를 주목한 것은 1890 년대 빌헬름 2 세가 추구한 세계정책(Weltpolitik)이라는 본격적인 제국주의 팽창과 1 차대전의 발발 때문이었다. 이와 달리 베른하르디가 1 차대전 발발 직전 저술한 군국주의적 저작은 영국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1860-70 년대보다 한층 첨예해진 영독 갈등이 이러한 차이를 낳았다. 영국인은 독일인의 '세계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베른하르디를 읽었고, 베른하르디를 이해하기 위해 트라이치케를 읽었다. 트라이치케를 이해하기 위해, 그에게 영향을 준 18 세기의 프리드리히 2 세를 탐구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프리드리히 2 세-트라이치케-베른하르디를 연결하는 계보가 상정되었다. 베른하르디가 트라이치케 사상을 계승하는 형태로 제시한 정치론과 전쟁론은 첫째, 베른하르디는 영구평화 사상에 반대했다. 둘째, 그는 전쟁은 생물학적 필연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그는 정치적·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전쟁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넷째, 베른하르디는 전쟁이 인간 행위자의 내면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도 이점을 역설하였다. 다섯째, 베른하르디는 공세를 칭송하였다. 영국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우방이자, 입헌주의·자유주의 정치학의 한 중심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정치학자들이 영국 학계의 논의를 참조한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상의 시도가 독일 사상계를 객관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않았다. 독일군과 그 정신적 근간으로 생각되는 베른하르디가 이미 타도해야 할 적으로 전제되었기 때문에, 영국인은 그 근원으로 지목된 사유를 적대적인 눈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섯 번째 장에서 최정훈 강사는 트라이치케의 논리를 내재적으로 독해하면서도 이를 자원으로 삼아 별개의 논변을 만들어내려는 전유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는 트라이치케 사상의 이해 수준이나 동의의 정도와 관계없이, 다이쇼 사상 공간에서 국가 폭력과 전쟁을 사유하는 데 칸트와 구별되는 사유 틀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트라이치케에 대한 일본 지식인의 이해가 언제나 영국과 일치한 것은 아니다. 일본은 1 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동맹국으로서 독일과 맞서 싸운 참전국이었지만 일본이 물리력을 동원한 정쟁은 미미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이 우방 영국을 위협하는 독일의 부상에 거리두기가 가능했다. 거리감과 냉정함 덕분에 일본인은 영국인의 프리즘을 매개하지 않고 트라이치케의 사상의 내적 논리를 검토할 여유도 있었다. 그리하여 그 사상의 영향력을 과장하지 않을 수 있었다. 트라이치케에 대한 더 공정한 이해는 그의 사상을 직접 읽고 판단할 수 있는 이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오노즈카 기헤이지는 『유럽 현대 정치와 학설론집』(歐州現代政治及學說論集)에서 트라이치케 사상을 원전으로부터 발췌하되 그 핵심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국가관(“국가의 개념”) · 국내정치관(“내정”) · 국제정치관(“대외관계”)]. 오노즈카가 트라이치케 텍스트를 이해하고 소개하는 데 그친 것은 아니다. 그 역시 다이쇼기 국제협조주의를 기대하는 사상적 자장 안에서 트라이치케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한편, 우키타 가즈타미는 트라이치케의 『정치학』을 일역하여 도쿄전문학교출판부에서 『트라이치케 씨 정치학』(ツライチュケ氏政治学) 상권으로 간행하고, 이후에도 같은 저작을 와세다대학출판부에서 1918 년, 1920 년 『군국주의정치학』(軍國主義政治學) 상하권으로 출간하였다. 우키타는 메이지 시대부터 트라이치케 사상을 자원으로 삼아 독자적 이론 구성을 시도한 인물이다. 이 시기 그의 성취는 단연 ‘윤리적 제국주의’론을 개진한 것이다. 우키타는 트라이치케 원전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비판적 평가를 역자 서문과 본문의 난외에 기입함으로써 특정한 방향의 읽기를 유도하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군국주의정치학』은 정확한 독해를 시도하는 주석서이면서 동시에 창조적 전유의 텍스트였다. 우키타는 자신의 내재적 이해와 다이쇼 시대 관점으로부터의 외재적 비판을 원전에 대해 시도하면서, 트라이치케 정치론을 5 가지로 요약하였다. “국가는 권력”이라는 명제, 자유주의적 개인관, 국가주의, 문화주의적 국가론, 세계통일국의 이상에 대한 부정이 그것이다. 우키타는 『군국주의정치학』이 부분적 진리를 포함한 텍스트임을 인정하지만, 국제협조주의에 가능성을 내비치며 그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이상의 고찰에서 도출되는 사상사 연구의 함의를 설명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이쇼 군국주의 담론을 둘러싼 고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다. 첫째로 사상사 연구가 역사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 다이쇼 군국주의에 대한 고찰은 몇몇 자유주의자 혹은 평화주의자의 생각과 달리 일본의 사상가가 권력의 행사를 논의할 때 국가를 힘과 윤리, 존재와 당위 사이에 놓인 양서류로서만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트라이치케 텍스트에 대한 당대의 다양한 반응은 칸트를 깨뜨리려 한 이 사상적 구도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사상사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자체가 사상 연구로서 기여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키타 가즈타미와 오노즈카 기헤이지가 보인 국제협조주의에 대한 기대는 트라이치케라는 논적을 진지하게 간주한 결과였다.

<토론>

질문 : 트라이치케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답 : 메이지·다이쇼 시대 자료를 보면서 우키타 가즈타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라이치케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잘 주목되지 않았던 사상가가 이 당시에는 주목이 되었을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생각할 때, 오늘날도 그것을 개헌을 하나 호헌을 하나 자체에 국가폭력의 건전한 행사가 전부 걸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글을 봤을 때 그러한 프레임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다른 그림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

질문 : 왜 일본 군국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수용하거나 배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1 차 세계대전 이후에서야 일본 사상계에서 전개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본이 팽창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 세기 후반이지만, 자국 내에서 실제로 전쟁의 피해를 입은 건 2 차 대전이 와서야 인데 그런 논리라면 이런 것이 늦게 진행되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외부자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군국주의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쳐 굉장히 오래된 현상으로 이해되는데, 왜 이런 논의가 더 빨리 시작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답 : 군국주의라는 용어조차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영어나 불어로 사용된 것이 1860~70 년대 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이 개념이 지칭하는 현상은 더 소급되어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드리히 2 세나 그 아버지 프리드리히 빌헬름 1 세도 군국주의 시초로 규정합니다. 또 하나는 1860·70 년대부터 이시기에 이 개념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에 대해서 사실은 치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

연구 주제나 범위는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이쇼시대 만큼 관심이 크지는 않았습니니다. 적어도 이 개념을 사용해서 논의를 진행된 것 같진 않습니다.

질문 : 평화의 대립 개념은 폭력인데, 왜 전쟁으로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폭력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주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찬성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경험하고 폭력을 통해서 전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전쟁론이 당시에 자유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대안으로 군국주의 담론이 나왔다면 제국주의와 대항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한편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들도 나왔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 : 제가 읽은 내에서는 그 대립항을 이 사람들이 아직 설정하지 않았습니니다. 예를 들면 전쟁의 형태, 국가가 조직적 폭력을 동원해서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로서 전쟁을 우리가 흔히 정의를 하는데 이것에 일탈해 있으면서도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혁명이나 내전 같은 상황에 대한 것을 평화의 대립항으로 사료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읽은 범위 내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않았습니니다.

질문 : 트라이치케가 어떤 사상이 나오려면 당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칸트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 전쟁시대에 살았습니니다. 트라이치케는 18-19 세기사람입니다. 프랑스 혁명 전쟁 끝난 이후에 제 1 차 세계대전까지 가는 동안에 전쟁이 많았습니니다. 트라이치케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답 : 방금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19 세기 사람입니다. 이 당시 19 세기를 사는 독일인들에게는 공통된 기억이 두 가지 있었습니니다. 하나는 1806 년의 예나-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대패를 당합니니다. 이로 인해서 프로이센이 그동안 군대를 강하게 다져왔는데 실재는 그렇지 았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니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처럼 통일된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니다. 일반적인 자유주의자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걷습니니다. 여기서 전쟁의 특징은 단기 결전으로 끝납니니다. 이 시기는 피를 많이 흘리거나 국가의 총력을 많이 동원하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니다. 트라이치케는 독일 통일 전쟁 시기에 살았습니니다. 1860~70 년대 있었던 독일 통일 전쟁을 목도했습니니다. 사실 그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니다.